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1회	2	3	4	5	6	7	8	9	득점	안타	실책
세인트루이스	0	0	0	0	0	0	0	0	0	0	4	0
LA 다저스	0	0	0	2	0	0	0	1	-	3	9	0

■이닝별 투구내용

1회 X ④ X X
2회 X X X
3회 X X X
4회 X X X
5회 H H XX X
6회 X X X
7회 X H X X

H 안타 ④ 볼넷 X 아웃 XX 병살 X 삼진

7이닝 3피안타 0실점
1볼넷 4탈삼진
투구수 108개
스트라이크 69 볼 39개
최고구속 153㎞

美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대진 현황

2013 WORLD SERIES 월드 시리즈 (10월24일~11월1일) 한국시간 기준

2013 NLCS		2013 ALCS
• 3:2	1차전	• 1:0
• 1:0	2	5:6 •
0:3 •	3	16일
16일	4	17일
17일	5	18일
19일	6	20일
20일	7	2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LA 다저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보스턴 레드삭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연합뉴스

류현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전력투구"

매팅리
"오늘 바로 저 모습을 기대했다"

美 언론
"류현진은 영웅… 목숨건 듯 던졌다"

독기품은 류현진, 다저스를 구했다

한국인 첫 빅리그 포스트시즌 선발승

세인트루이스 타선 강속구 요리… 4회까지 노히트

7이닝 3피안파 무실점… 다저스 2패 뒤 귀중한1승

'괴물 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벼랑 끝으로 몰린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다저스의 '황금 동아줄'로 자리매김했다.

류현진은 15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고 팀에 귀중한 1승(3-0 다저스 승)을 선사했다.

앞선 1·2차전에서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인키 등 원투펀치를 앞세우고도 세인트루이스에 2연패를 당한 다저스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3차전에 류현진을 선발로 올렸다. 상대는 올 정규시즌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1위(19승9패)인 애덤 웨인라이트였다.

팀의 운명을 짊어진 류현진은 1회부터 95마일(153㎞)짜리의 강속구를 뿌리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4회까지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노히트로 요리하며 '괴물'의 위력을 발휘했다.

평소보다 커브 구사 빈도를 높인 류현진은 이날 108개를 던져 69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오른손 타자 바깥에 떨어지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가 필살기로 통했다.

이날 류현진과 다저스의 최대 위기 상황이던 5회 무사 1·2루에서는 상대 타자의 주루 실수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위기를 벗어났다. 침착함을 잃지 않은 류현진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류현진은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7회 2사 1루에서 매팅리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 더 던질 수 있겠느냐고 묻자 류현진은 강한 의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류현진은 감독이 덕아웃으로 돌아간 직후, 이날의 마지막 상대인 맷 애덤스에게 91마일(약 146㎞)짜리 포심패스트볼로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내고 홈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당당하게 마운드를 내려왔다.

류현진의 빛나는 활약으로 다저스는 탈락 위기의 수렁에서 탈출했다.

내셔널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손꼽히는 웨인라이트는 2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월드시리즈 1승을 포함, 포스트시즌 총 15경기에서 4승 4세이브 평균자책점 2.03으로 무패를 자랑하던 웨인라이트가 패배를 떠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현진은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가운데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선발승을 거두며 새 기록을 썼다.

또 류현진의 호투는 다저스의 25년 만의 포스트시즌 4피안타 이하 영봉승의 발판이 됐다. 이날 다저스의 마운드를 책임진 류현진(3안타), 브라이언 윌슨(1안타·8회), 켄리 얀선(9회) 세 투수는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산발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1988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불도그' 오렐 허샤이저의 완봉투(3피안타)를 앞세워 6-0으로 이긴 이후 25년 만의 4피안타 이하 영봉승이다.

류현진은 "초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초반부터 전력 투구했던 것이 효과를 봤다. 1회부터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초반 실점 징크스'를 털어낸 것이 승인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디비전 시리즈의 부진도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류현진은 "올림픽 결승전, WBC결승전 그리고 신인 때 한국시리즈까지 해봤는데 거의 맞먹는 중요한 경기였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초반 3이닝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반을 조심하자고 했다. 앞선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팀의 4차전은 16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플레이오프 LG vs 두산 '잠실대첩'

오늘 1차전… 류제국-노경은 토종에이스 기선잡기 맞대결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토종 에이스 류제국과 노경은이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첫판에 기선 제압의 특명을 받았다.

김기태 LG 감독과 김진욱 두산 감독은 1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투수를 예고했다. 16일 오후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1차전은 류제국과 노경은이 책임진다.

올 시즌 한국프로야구에 처음 발을 들인 류제국은 12승 2패, 0.857의 승률을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팀의 승리 보증수표로 자리 잡았다.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큰 경기에 여러 차례 등판했지만 포스트시즌 경험이 없어 단기전에서 얼마만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선발로 등판, 6이닝 동안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끊은 노경은은 3연승을 달린 두산의 여세를 몰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스틴 니퍼트, 유희관과 함께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며 올 시즌 10승(10패)을 쌓은 노경은은 준플레이오프 3차전 때 7회 3점포를 얻어맞긴 했지만 6회까지 묵직한 직구를 무기로 넥센 타선을 꽁꽁 묶었다.

다만 열흘간 어깨를 아낀 류제국에 비해 휴식 기간이 짧았고, 5번의 혈전을 치르며 피로감이 쌓였을 불펜을 위해 오랜 이닝을 끌고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겨낼지가 관건이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13년 만에 전개되는 '덕아웃 시리즈'다. 잠실구장을 나눠 쓰는 서울의 인기구단인 LG와 두산이 포스트시즌에서 맞붙는 것은 1993·1998년 준플레이오프와 2000년 플레이오프 이후 처음이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모두 LG가 이겼고, 한 번뿐인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는 두산이 4승 2패로 LG를 격파하고 한국시리즈에 올랐다. 두산은 이후로도 지난해까지 8차례 포스트시즌에 올라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강호로 자리매김했지만, LG는 2002년 한국시리즈 이후 10년간 포스트시즌 구경을 하지 못했다.

"류제국이 근성이 있고 올해 승률도 가장 좋다. 팀의 에이스라는 자부심도 있고 큰 경기 경험도 많아 1차전 선발로 내세웠다"고 설명한 김기태 감독은 "감독부터 선수, 팬까지 모두가 갈망하던 가을 야구다. 즐길 준비가 돼 있다. 부담을 떨치고 모든 선수들과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진욱 감독은 "로테이션상 노경은이 선발로 나선다"며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도 불리하다는 평가를 딛고 선수들이 일어섰다. 체력은 떨어졌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미러클 두산'의 전통을 이어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리즈 티켓을 놓고 벌어지는 플레이오프는 5전3승제로 치러진다. 두 팀은 올해 정규리그 16차례 맞대결에서는 8승 8패를 나눠 가져 호각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2013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대진 일정

플레이오프 5전3선승제	한국시리즈 7전4선승제
1차전 10월 16일(수)	1차전 10월24일(목)
2차전 10월 17일(목)	2차전 10월25일(금)
3차전 10월 19일(토)	3차전 10월27일(일)
4차전 10월 20일(일)	4차전 10월28일(월)
5차전 10월 22일(화)	5차전 10월29일(화)
	6차전 10월31일(목)
	7차전 11월 1일(금)

두산 LG 삼성

PO 4,5차전과 한국시리즈 5,6,7차전은 필요시 개최

연합뉴스